

커지는 K-푸드 인기... 캐나다 박람회서 2960만달러 계약

aT, 미국 이어 캐나다 진출 지원 '건강함' 내세워 북미 트렌드 저격 국내 12개 수출업체 참가·상담

한국산 식품이 북미대륙 소비자들 기호에 다가서고 있다. 최근 현지 식품박람회에 모인 인파가 K-푸드의 확산·인기를 입증하는 모습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3분기 미국 로스앤젤레스, 4분기 휴스턴 행사에 이어 올해 2분기엔 캐나다로 향했다.

aT는 지난달 29일~이달 1일 기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6 몬트리올 국제식품박람회'(2026 SIAL Canada in Montreal)에 참가해, K-푸드 업체의 현지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했다.

행사장 내 한국관에서의 식품 전시에는 국내 12개 수출업체가 참여했다. 발효식품인 김치를 비롯해 비건만두와 냉동 가정간편식 제품, 신선포도, 스낵류, 김 등 다양한 농식품을 선보이며 바이어들에게 한국산 식품의 경쟁력을 알렸다.

한국관 내 K-푸드 홍보관에서는 우리 식재료가 가미된 파인다이닝 요리를 시연해, 현장 방문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모았다. 특히 김치와 누룽지로 아



미주 K-푸드 페어 B2B 행사장의 모습.



'2026 몬트리올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한국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K-푸드를 시식하고 있다. /aT

삭한 식감을 살린 샐러드가 인기였다. 방문객들은 또 고추장을 발라 구운 삼겹살, 크림소스에 된장을 가미한 파스타, 홍삼튀김 유아음료수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장을 찾은 식재료유통회사 영입이사 스콧 머피 씨는 "K-푸드는 건강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많아 최근 북미 바이어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히 다양한 발효식품은 현지 건강식품 소비 흐름과 잘 맞는다"며 소감을 전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총 3593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이 진행됐

다. 또 김치, 냉동마늘, 냉동잡채, 냉동 비빔밥, 비건만두 등 총 7건의 현장 업무협약(MOU) 체결 등 296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5개국, 800개 업체가 참가했다. 2만3000여명의 바이어 및 식품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등 이번 박람회는 북미시장 공략을 위한 주요 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제2도시 몬트리올에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 남미 등 다문화 식품 바이어들의 방문이 잦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현재 캐나다는 다문화 소비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식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시장"이라며 "앞으로 건강함, 프리미엄, 발효식품의 강점을 앞세워 북미시장 수출 확대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aT는 앞서 작년 하반기엔 미국 서·남부 소비자들을 찾았다. 9월 로스앤젤레스와 10월 휴스턴에서 '2025 미주 K-푸드 페어'를 잇따라 개최했다.

LA에서 B2B 수출상담회, 휴스턴에서는 B2C 소비자체험행사도 나눠 추진했다. K-푸드 수출기반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LA 웨라톤세리토스호텔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43개 식품기업과 미주 바이어 77개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총 415건의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전통주와 가정간편식, 장류·소스류가 바이어들 사이 호평을 받았다. 현지에서 980만 달러 규모의 MOU 11건이 체결됐다. 부대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현지 인플루언서 대상 마켓테스트 ▲FDA(미 식품의약국) 규정 유의사항과 관세 대응 세미나 ▲북미 진출을 위한 지적재산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월의 소비자체험행사는 '휴스턴 K-페스티벌'과 연계해 K-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축제형 행사로 열렸다.

휴스턴에서는 라면, 스낵류, 음료 등의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K-푸드의 매력을 알렸다. 특히 한국산 배 슬러시는 벌써 30도를 오르내리는 현지 무더위 속, 방문객 각증 해소에 탁월했다. 또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장면을 모티브로 한 케데헌 K-푸드 한상차림, 한국 쌀과자를 활용한 크로거 셰프 주니어 쿠킹클래스, K-푸드 퀴즈쇼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제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공정위, 플라스틱 파レット 담합 첫 제재

골드라인·엔피씨·현대리바트 등 165건 입찰서 낙찰자·가격 사전 모의

물류 현장의 필수 자재인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18개 파렛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골드라인, 엔피씨, 현대리바트, 한국프라스틱, 이진그린텍 등 국내 주요 파렛트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파렛트(Pallet)는 화물을 하나로 묶어 지게차로 운송할 때 사용하는 깔판 모양의 자재로, 석유화학 및 사료 등 물

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18개 사는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대면 모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를 지원했고, 낙찰자는 그 대가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등 5개 사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에서도 담합(2020년 6월~2024년 5월)을 벌였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납품을 독점할 수 있도록 돕는 대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단위농협이 개별적으로

견적을 요청할 경우, 농협 납품가보다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해 농협 중앙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

이번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3692억원에 달한다. 담합 대상이 된 수요처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을 포함해 총 24개 사업자가 포함돼 있어 산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 간의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당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추후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지난달 하순 활동을 시작한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

/농협중앙회

농협, 청년들과 손잡고 디지털농업 알린다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 출범

농협은 우리 농업의 지향점인 디지털 농업 관련해, 젊은이들의 의견 수렴 강화에 나선다. 20·30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의 견해를 반영하고자, 서포터즈를 발족했다.

이른바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다. 이들은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디지털농업 서비스 홍보를 위해 선발된 청년들이다. 'NH오늘농사'는 약 8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디지털영농 플랫폼

품이다. 7일 농협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9월 중순까지 ▲'NH오늘농사' 디지털 홍보 ▲농촌 일손돕기 및 쌀 소비촉진 부스 운영 등 현장활동 ▲서비스 고도화 제안 등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젊은층의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NH오늘농사서비스 홍보와 체험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연안해운업계 추경 긴급 지원

유가 급등에 226억 투입

정부가 연안해운업계에 추가경정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석유류 값 폭등으로 국내 연안해운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불어난 데 따른 긴급 지원책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연안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및 운항결손금 등을 비롯한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

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들 선박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하순 정부발 최고가격제(상한제)가 실시됐지만 지난 2월에 비해서는 32% 뛰었다. 면세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68%나 올랐다.

해수부는 이러한 상황의 타격을 위해 추경 편성으로 확보한 226억원을 조속히 집행해, 선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모습 /뉴시스

정상 운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42개 항로가 대상이다.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42곳은 29개 국가보조항로와 13개 적자항로다. /세종=김연세 기자

KTL, 국내 최고 수준 보안인증 획득

'ISMS-P', 101개 항목 모두 통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정보보호 역량 향상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KTL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ISMS-P는 기관이 정보보호 및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 등 총 3개 영역 101개 항목의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번 인증은 KTL의 대표 누리집과 시험인증서비스 부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KTL 측은 핵심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관리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